

국제 안전보건동향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17. 9. 21]

Vol.
434

<목 차>

1. 영국,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업종별 건강증진 계획 수립 1
2. 트럼프 행정부,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 지속 추진 4
3. 영국정부, 건강증진 통합서비스(가상허브) 구축 논의 시작 5
4. 스트레스의 과거와 현재 : 직무 스트레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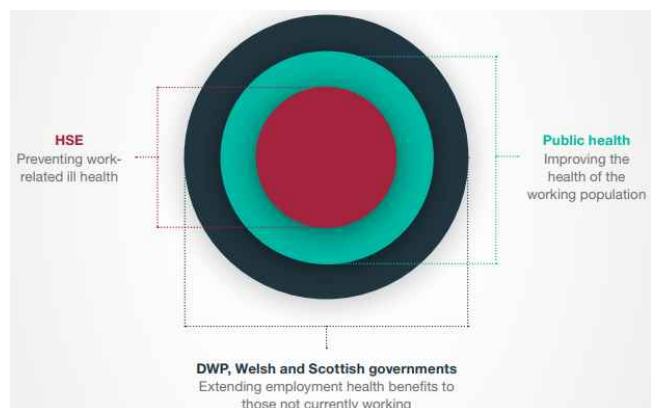
영국 안전보건청(HSE), 19개 업종과 3대 업무상 질병에 대한 향후 3~5년간 건강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함¹⁾

□ 배 경

- 영국은 세계 최고의 안전보건 수준을 구축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과 혁신을 증대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140억 파운드, 21조원)을 줄이기 위해
 - 향후 3~5년간 19개 업종²⁾ 및 3대 업무상 질병(직업성 폐암,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건강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 근로자 건강 증진을 '생산성 향상', '건강 불평등 개선'과 '고령 근로자 지원'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업 추진 예정

□ 현 황

- 사업장 건강문제는 직무스트레스 등 전형적 질병부터 석면 중피종과 같은 특수한 질병도 있으며, 기존에 알려진 질병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현하는 질병도 있음
 - 영국에는 130만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음
 - 과거 유해물질 노출로 연간 13,000명이 사망
 - 2014/15 회계년도에 신규 업무상질병으로 14조원 (93억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하고, 2010년에는 발암성 물질 노출에 따른 신규 직업성 암 발생 비용이 19조원(123억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됨



1) 출처 : <http://www.hse.gov.uk/aboutus/strategiesandplans/sector-health-plans.htm>

2) 19개 업종 : <http://www.hse.gov.uk/aboutus/strategiesandplans/sector-plans/index.htm>

□ 추진 전략

- 재해위험, 비용 및 질병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사업장의 종합적인 건강관리 활동 독려
 -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하고 HSE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근로자, 사업주(특히 중소기업) 및 정부 등 모두에 유익하고, 예방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며, 성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분야에 감독역량 집중
- 관련 정부부처 및 산업보건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건강증진 집중 분야

○ 직업성 폐암

- 직업성 폐암으로 영국에서 매년 12,000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발병 원인은 레지오넬라 감염, 직업성 천식 등 급성 중독으로 인한 만성폐암, 중피종과 같은 만성 중독이 있음
-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인자, 증기, 분진, 석면, 실리카 등의 다양한 인자가 원인이 됨
 - ☞ 사업주 및 안전보건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발병인자에 대한 노출관리를 개선하여 직업성 폐암 발생 통제

○ 근골격계질환(MSDs)

- MSDs는 질병건수의 41%와 근로손실일수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노동계가 가장 큰 산업보건 문제로 인식
- 모든 업종과 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운수창고업, 건설업과 보건의료업에서 높게 나타남. 2015/16년 약 539,000건이 있으며 이중 176,000건이 신규로 발생하고 880만 근로손실일이 발생
 - ☞ 사업주 및 안전보건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업종과 직종에 감독을 집중하여 신규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억제

○ 직무 스트레스

- 업무상 질병 건수의 37%와 근로손실일의 45%을 차지하며, 업무상 질병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

- 모든 업종과 규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과 정부기관 및 금융업에서 높게 나타남. 2015/16년 약 488,000명의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이중 224,000명이 신규로 발생하고 1,170만 근로손실일이 발생
- ☞ 사업주 및 안전보건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정신건강 개선을 정부 중요 정책에 포함하도록 추진
- ☞ 사업주의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운영 독려, 인사 및 안전보건 관계자에 대한 교육으로 역량강화 및 다양한 업종 우수사례 수집·보급

○ 건설업

- 건설업에 220만명 근로자 종사(전체 근로자의 7%), 연간 150조원(970억파운드)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9인 이하 사업장이 98%를 점유
- 전체 사망자 중 30%을 차지하고, 과거 5년간 210명이 사망함. 건설업 재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 강도와 질병은 여전히 높음. 안전관리 수준에 비해 건강관리가 뒤져 있음. 폐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 건설업 설계 및 관리 규칙(CDM 2015)의 현장 적용 강화, 폐질환, 근골격계질환 및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에 집중, 소규모사업장 위험관리 역량강화 지원

- Embedding the principles of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CDM)
- Focusing on a reduction in the cases of occupational lung disease, MSDs and work-related stress
- Supporting small businesses to achieve improved risk management and control



<시 사 점>

- ◇ 근로자 건강문제가 고령근로자 및 근로연령 증가,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 및 노동생산성 향상과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증진된 만큼 근로자 건강증진 정책도 사업장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추진을 검토

예측한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이 50% 이상 폐기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17. 7. 20 기준 미국노동부 의제')³⁾

□ 주요내용

- '17년 의제(Agenda)에는 전년(30건) 대비 50%이상 감소한 14개 법률 포함
 - 전체적으로 제안한 연방정부 규제 469건이 취소되었고, 391건이 '장기과제' 또는 '폐기'로 분류되어 재검토 필요
 - 의제 전문에 "이 의제는 규제개혁 서막을 알리는 것이며 미국인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임.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혁신을 이끌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
 -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법령 도입 시 2개의 법령을 없애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 표명
- 현 6개월인 사고 및 질병 기록관리를 5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도 계류 중
 - 일명 "Volks" 규칙으로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현재 6개월간 기록관리를 5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12월 발표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의회 법안 검토 결의안(Congressional Review Act resolution)에 서명하여 거부
 - 혈행성 병원균(bloodborne pathogens), 가연성 분진, 오래된 허용노출한계 폐지, 건설현장 소음, 1-브로모프로판 기준 등 관련 법령도 의제에서 삭제

<시 사 점>

- ◇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규제)가 완화되거나 일부 폐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임기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3) 출처: <http://www.safetyandhealthmagazine.com/articles/15985-updated-agenda-reflects-trump-administration-focus-on-de-regulation>

영국 안전보건청(HSE), 보건부(Public Health England, PHE), 소규모 사업장 연합(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FSB) 등에서 중복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가상허브(virtual hub) 구축 논의 시작⁴⁾

□ 주요내용

- 영국 안전보건청(HSE)
주관 컨퍼런스(9.18)에서
통합 서비스 필요성 제기



- 컨퍼런스에서 HSE는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MSDs) 및 폐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캠페인* 선포, 이는 PHE에서 이미 발표(9.12)한 새로운 지침과 유사
* 건강하게 집으로 복귀(Go Home Healthy), 두 가지 모두 스트레스와 MSDs를 다루고 있음
- 이에 장애·근로·보건부 장관(Penny Mordaunt)은 HSE 컨퍼런스에서 근로자 건강관련 서비스를 통합하는 가상허브(virtual hub) 구축을 제안
- HSE Peter Brown 팀장(직업보건프로그램국)은 “사업장 보건 증진에 정부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자문을 해주는 허브 구축이 절실”함을 밝힘
- 온라인 허브(online hub)는 의회 심의용 정책제안서(green paper)에서 최초 언급
 - 온라인 허브는 정책제안서에 따른 실행계획의 일부로서 초기단계 수준임
 - 한편, PHE는 소규모 사업장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틀을 보급, FSB는 PHE와 공동으로 소규모 및 자영업 사업장 웰빙 증진과 의식고취를 위해 2주간 캠페인(Wellbeing in Small Business) 전개 등 기관별 다양한 보건 사업이 전개

<시 사 점>

- ◇ 현재 여러 기관에서 근로자 보건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논의가 본격 시작
- ◇ 우리나라도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 통합 논의 필요

4) Health and Safety at Work(9월호), Government plan to unify comms as HSE and PHE issue overlapping advice

스트레스 관리는 과거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 직장 내 근로자 건강 및 웰빙 증진에 중요한 요소로서 전사 차원에서 접근하는 추세⁵⁾

□ 서론

- 오늘날 높은 스트레스와 활동량이 적은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및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 웰빙이나 건강증진 등 스트레스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식사 조절, 운동 등 건강을 관리해 왔지만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은 근로자의 통제 밖인 경우가 많음
 - ☞ 과도한 업무량, 업무시간 후 업무관련 및 상사로부터 연락, 관리자의 소속 직원 지원 부족 등
-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영국안전보건청(HSE)은 올해 3월 ‘스트레스 서밋 (Stress Summit)’을 개최, 스트레스 관리 기준^{*}에 대한 이행을 다짐

* 영국 스트레스 관리 기준(Management Standards)⁶⁾

-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근로자 건강 위험요소를 사업장 스스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HSE, 2004 도입)으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무 스트레스 유발 및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가 무엇인지 명시
- 부적절한 관리 시 직무 스트레스 유발 위험도를 높이는 6가지 요소
 - ㉠ 일에 대한 부담(demands) : 업무강도, 업무패턴, 업무환경
 - ㉡ 통제(control) : 업무 결정권
 - ㉢ 지원(support) : 회사, 상사, 동료에게서 얻는 격려, 지원 및 자원
 - ㉣ 관계(relationships) : 대립 방지 및 부적절한 행동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업무방식
 - ㉤ 역할(role) : 맡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 분장의 타당성
 - ㉥ 변화(change) : 조직적 변화에 대한 관리 및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정도

5) 출처 : <http://www.healthandsafetyatwork.com/health/stress-work-managing-s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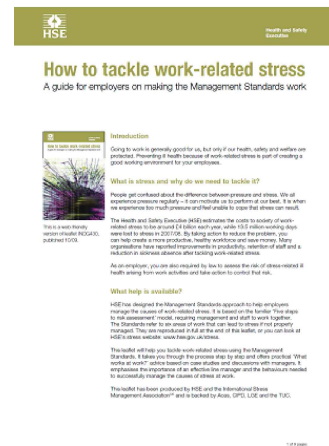
6) 출처 : <http://www.hse.gov.uk/stress/techpart1.pdf>

- HSE가 권장하는 5단계 스트레스 관리 접근법⁷⁾

Figure 1 The Management Standards approach



1. 위험요소 파악
2. 누가, 어떻게 해로울 수 있는가?
3. 위험요소 평가
4. 발견사항 기록
5. 추적관찰 및 리뷰



□ 본론

- 2015-16년 전체 업무상질병의 37%가 스트레스, 우울증 및 불안으로 인함
 - ※ 2015-16년 업무상질병수는 224,000건
 - 건강 악화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45%를 차지함 (근로자당 평균 23.9일)
 - ⇒ 2009년 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냄
- 유럽산업안전보건청이 진행한 「2014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 의식 조사⁸⁾」에 따르면 조사대상(영국)의 **80% 이상**이 위험물질과 같은 물리적 위험요소에 대해 근로자 교육을 하는 반면 **심리적인 위험요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곳은 50%**에 그침
- HSE 작업장보건전문가위원회(WHEC)의 보고서에 따르면 24시간 ‘상시접속’ 가능한 업무 문화가 휴식시간 감소 및 정보 과다를 초래하는 반면 무노동무임금계약(zero-hour contracts), 재택근무 등의 경우 불안정함과 고립을 초래함
 - ⇒ 스트레스의 발생 요인은 다양함

7) 글/그림 출처 : <http://www.hse.gov.uk/pubns/indg430.pdf>

8) EU-OSHA European Survey of Enterprises on New and Emerging Risks(ESENER)

- 영국 공공부문 종사 근로자의 업무는 민간 종사 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높게 관찰됨 ⇒ 업무 특성 상 폭력이나 추행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음
예: 영국 응급요원 및 보건종사자의 12%(2016-17회계년도)가 스트레스로 병가를 사용했으며 이는 근로손실일 81,668에 해당⁹⁾

□ 결 론

- 업무 탄력성(resilience)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필요
 - '스트레스를 근로자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조직의 인식 전환이 필요
예: 실제 업무에 과다 노출된 근로자에 '시간관리문제'를 부각하는 것
 - 탄력성 구축을 위해 팀 우애나 동료와의 생산적인 관계 구축, 보상 및 발전, 교육기회 제공 등이 필요
- 스트레스(Stress)를 해결책(Solution)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
 - 근로자 컨설턴트 : 고용주와 근로자대표가 상담을 통한 해결책 발굴
 - 경영진의 동의 및 지원(boardroom buy-in) : 스트레스 해결에 대한 전사적 지원 문화
 - 열린 문화 조성 :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대화가 통하는 문화
 - 문제 예측 : 조직의 변화에 대하여 근로자와 충분한 사전 정보공유 필요
 - 검토 :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intervention)을 충분히 검토

<시 사 점>

- ◇ 스트레스 자체는 정신 질환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근무조건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신건강문제로 발전하는데 기여
- ◇ 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기준 도입 및 유연한 근무처와 같은 직장 내 지원 방안 수립 및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

9) 출처: <http://www2.cipd.co.uk/pm/peoplemanagement/b/weblog/archive/2017/09/20/stress-caused-ambulance-workers-to-take-80-000-sick-days-last-year.aspx>